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ADP, '9월 미 기업 채용, 5개월간 성장 둔화 후 상승'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하락... 예상 외의 탄력적인 일자리 보고서 발표

[뉴욕시]

- Bloomberg: 맨해튼 주택 소유자, 현금보다 모기지 선호

[물류]

- Bloomberg: 백악관과 트럼프, 항만 파업 관련 선사들 비판
- CNBC: 항만 파업 인플레 다시 촉발할 수도... 중요한 건 파업 기간

[인공지능]

- Bloomberg: MIT 경제학자, "AI는 모든 일자리의 5%만 대체한다"
- YahooFinance: 연방정부, 반도체 재료에 AI 활용하는 데 1억불 지원
- WSJ: 엔비디아와 Accenture 기업용 AI 판매에 공동 노력
- CNNBusiness: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을 '디지털 친구'로 바꾸려는 이유

[원유]

- Bloomberg: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석유 가격 다시 상승
- WSJ: 사우디 장관, "OPEC+ 회원국이 생산 억제 무시하면 50불로 하락" 경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JP모건, 저소득 지역에 약 100개 신규 지점 개설한다
- WSJ: CVS 문제, 쉽게 해결 안 된다
- Bloomberg: 스타벅스 새 CEO, 운영진 발빠르게 재편
- YahooFinance: 테슬라 3분기 출고량 예상치 미흡... 주가 5% 하락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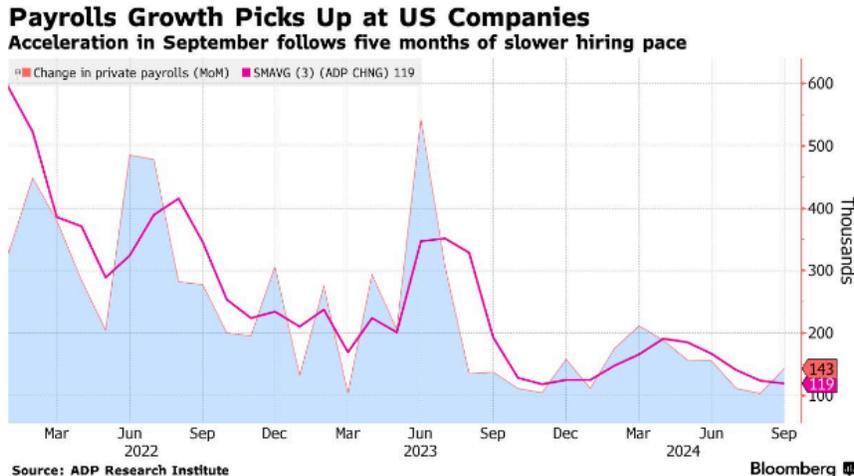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Hiring in ADP Data Rebounds After Five Months of Easing

ADP, '9월 미 기업 채용, 5개월간 성장 둔화 후 상승'

- 오늘 수요일 ADP Research Institute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 고용 건수가 2023년 3월 이래 증가세가 가장 꺾였던 8월 이후에 증가세를 보였다. 14만4천개 증가했다. 블룸버그의 예상치는 12만5천개였다.
- 설사 지난달에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3개월간의 평균치는 11만9천개로 지난 2020년 이래 가장 낮았다.
- 한편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시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실업률은 지난 수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일자리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이 9월에 선제적으로 예상보다 폭으로 금리를 인하했었다.
- 중요한 연방정부의 월별 일자리 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데, 9월에 2개월 연속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4.2%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Slide as Resilient Job-Market Data Weighs on Fed Bets

국채 하락... 예상 외의 탄력적인 일자리 보고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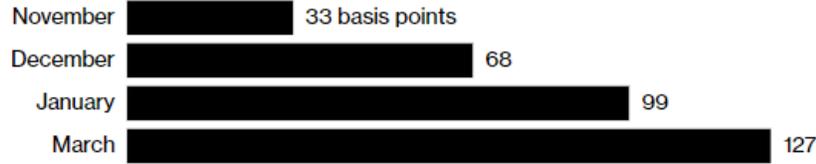
-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노동 시장 상황인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이 예상 외의 추가 일자리 증가 보고서가 발표되는 가운데 미 국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투자자들은 9월 14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 증가로 연준의 올해 큰 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가운데 오늘 수요일 보고서 발표 전에도 국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1월에 33베이스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이는 두 번째로 0.5%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었지만 여전히 강한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Traders Are Split on Scale of Fed's Next Interest-Rate Cut

Markets price in 33 basis points of easing in November

■ Market-implied pricing of cumulative rate cuts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Manhattan Homebuyers Are Starting to Favor Mortgages Over C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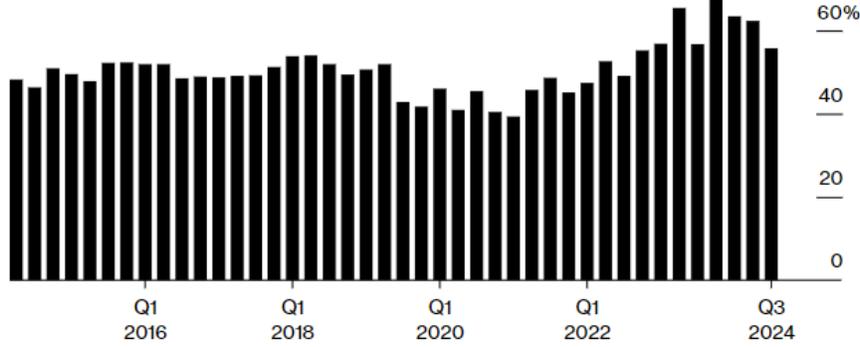
맨해튼 주택 소유자, 현금보다 모기지 선호

- 맨해튼에서 주택 구입시 자금을 모기지로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판매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Miller Samuel Inc 등 부동산 관련 회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옵(co-ops)과 콘도 체결 숫자가 2분기에 비해 6.7% 상승했다.
- 이들 판매 중 모기지로 인한 주택 구입 비중은 지난 2년 내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전에 모기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 이자율이 낮아졌고 금융시장이 보다 양호한 상태가 주택 구입자들이 용자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Share of Manhattan Cash Sales Declines as Rates Fall

Lower borrowing costs are luring more buyers using mortgages

■ Share of cash sales



Source: Miller Samuel and Douglas Elliman

Bloomberg 기사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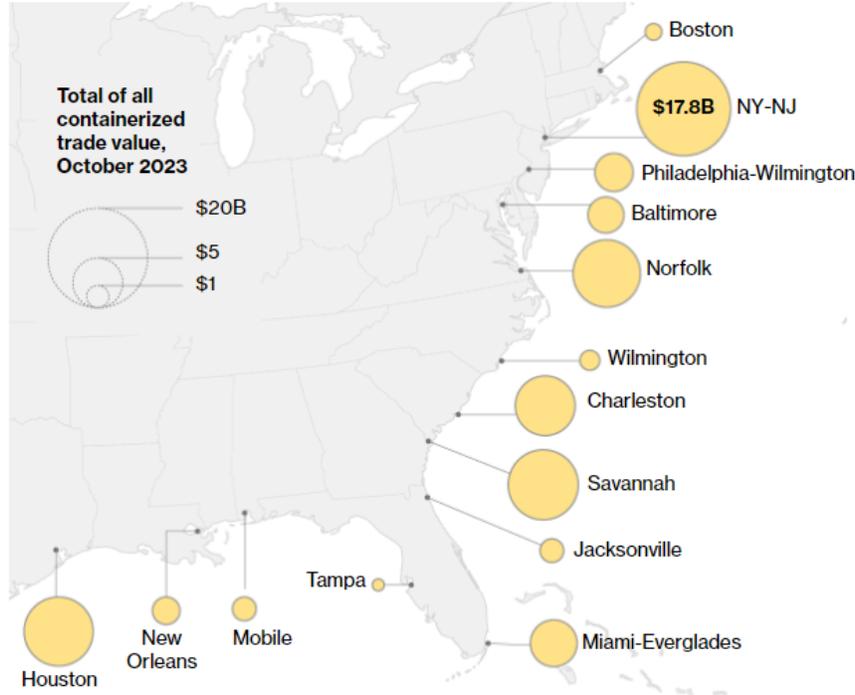
Bloomberg: White House and Trump Echo Dockworkers in Blaming Shipping Lines

백악관과 트럼프, 항만 파업 관련 선사들 비판

- 바이든 행정부와 전 대통령 트럼프는 어제 화요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항만 노동자들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선사들이 팬데믹 기간 중에 노무자들을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 백악관은 선사들에게 파업 관련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은 인상하는 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긴급상황에서 수익을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이미 대형 두 개 선사들은 파업이 수 주 동안 계속될 경우 추가 운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바이든과 해리스는 이번 파업 기관에 선사들이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Dockworker Strike Shuts Eastern US and Gulf Ports

Ports affected by the strike accounted for \$69.2 billion in containerized trade in October 2023



Source: USA Trade, U.S. Census
 Note: Trade value for the ports of New York and New Jersey; Wilmington, Del. and Philadelphia; and Everglades and Miami are combined.

Bloomberg 기사

CNBC: Port strike could reignite inflation, with larger economic impact dependent on how long it lasts

항만 파업 인플레 다시 촉발할 수도... 중요한 건 파업 기간

- 동부 항만 및 걸프만 파업의 영향은 파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Taft-Hartley 법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해 80일간 파업을 멈출 순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파업이 길어지는 걸 막는 것은 노조와 회사 측 협상가들에게 달려 있다.
- 어려움을 겪는 주요 산업 분야로 석탄, 에너지, 농산물이 있다.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 Andrew Hollenhorst는 “수출입이 정체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실이 늘어난다. 증가한다. 수입 신선 과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 먼저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 파업이 길어지면 특정 부품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자동차 같은 제조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동부 항만 대신 서부 항만을 이용하거나 미리 물량을 비축하는 등 대비를 했다.
-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인플레가 악화될 수 있다. Quinnipiac 대학 Christopher Ball 경제학 교수는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디스인플레 압력을 가했던 식품과 자동차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준 역시 추가 인하가 예상됐지만 파업으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다.

CNBC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AI Can Only Do 5% of Jobs, Says MIT Economist Who Fears Crash**MIT 경제학자, “AI는 모든 일자리의 5%만 대체한다”**

- MIT의 경제학자인 Daron Acemoglu는 향후 10년에 걸쳐 AI의 개발로 5% 정도의 일자리만이 AI에 의해 잠식되거나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는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 수십 억달러를 AI에 지출하는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 그는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는데 일자리 5% 대체되는 비율로 경제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현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AI의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Bloomberg 기사

FinanceYahoo: US to award up to \$100 million to boost use of AI for semiconductor materials**연방정부, 반도체 재료에 AI 활용하는 데 1억불 지원**

- 연방 상무부는 오늘 수요일 새롭게 지속 가능한 반도체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인공 지능을 사용하는 데 1억달러의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 생산과 연구 관련 5백27억달러 규모를 관할하고 있는데 대학과 국가 연구기관, 개입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산을 위한 AI에 기반을 둔 실험을 하는데 1억달러를 지원하다는 것이다.
- 자원 집약도가 낮은 새로운 반도체 재료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YahooFinance 기사

WSJ: Nvidia and Accenture Join Forces to Push Corporate AI
엔비디아와 Accenture 기업용 AI 판매에 공동 노력

- 엔비디아는 자체 반도체의 구매를 촉진하는 기술 수요를 끌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AI 도구를 채택하도록 수천 명의 컨설턴트를 배치하기 위해 Accenture와 공동 협력하고 있다.

- 공동 협력이 오늘 수요일 발표가 됐는데 IT 컨설팅 회사인 Accenture는 새로운 엔비디아 부서를 만들기 위해 엔비디아 인공지능 톨을 관련 3만명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 우선적으로는 마케팅과 제조 자동화를 포함한 업무를 자동화 하기 위해 생산형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WSJ 기사

CNNBusiness: 'Comfortable, fun, familiar': Why Microsoft is trying to turn its AI chatbot into a digital friend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을 '디지털 친구'로 바꾸려는 이유

- AI 챗봇은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이메일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소비자를 위한 생산성 도구(productivity tools)로 여겨졌다. 하지만 챗봇은 종종 이상한 답변을 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챗봇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챗봇의 능력이 아니라 챗봇의 성격과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어제 화요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AI 시스템 Copilot 업데이트가 AI 동반자 만들기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업데이트된 Copilot은 따뜻하고 개성 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도전을 이겨낼 때마다 격려와 피드백, 조언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점점 늘어나는 AI 챗봇의 홍수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두드러지게 만든다.

CNNBusiness 기사

[원유]

Bloomberg: Oil's War Premium Roars Back After Iranian Strike on Israel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석유 가격 다시 상승

-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 공격하면서 전쟁에 따른 석유 가격이 다시 올랐다. 화요일 브렌트유는 5% 이상 증가했고, 수요일 유가는 이틀 만에 약 5달러 오른 배럴당 75달러 이상에 거래됐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보복을 선언하면서 유가가 더 오를 위험이 커지고 있다.
- Clearview Energy Partners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유가는 배럴당 7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13달러에서 2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이란이 걸프 지역 원유 운송의 주요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을 위험이 있다. 이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 수에즈 운하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

- 중동에서 혼란이 지속되면 미국은 전략 석유 비축량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축유는 약 3억8천300만 배럴로 상당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OPEC+는 12월부터 증산할 계획이다.

Bloomberg 기사

WSJ: Saudi Minister Warns of \$50 Oil as OPEC+ Members Flout Production Curbs

사우디 장관, “OPEC+ 회원국이 생산 억제 무시하면 50불로 하락” 경고

- 사우디 석유 장관은 OPEC+에게 합의된 생산 한도를 지키지 않으면 유가를 5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OPEC+는 수요일 생산량 제한 완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몇 달 동안 유가는 하락세였다. 지난 분기 브렌트유는 약 16% 하락했다. OPEC+는 감산 기간을 늘렸지만 하락세는 유지됐다. 시장 점유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IEA에 따르면 2022년 51% 점유율에서 올해 48%까지 감소했다. 또한 일부 회원국들이 약속보다 더 많이 생산해 공급 억제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 분석가들은 사우디가 경제 혁신을 위해 배럴당 85달러를 유지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 둔화로 유가는 9개월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75달러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사우디는 석유 가격 방어 노력을 다른 생산자들이 악용한다고 느끼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우디는 1986년 유가를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폭락시킨 적이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JPMorgan Plans to Open Around 100 New Branches in Low-Income Areas

JP모건, 저소득 지역에 약 100개 신규 지점 개설한다

- JP모건 체이스는 미 전역 저소득 지역에 약 100개의 신규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지점에는 일반적인 은행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비즈니스와 금융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간이 있다.
- JP모건의 최고 경영자 Dimon은 “이 모델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비즈니스다. 5년 전 이 모델을 시범 운영했고 고객 수, 예금, 투자금 등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JP모건 체이스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 Diedra Porche는 지역사회를 경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 뉴욕 할렘에 있는 체이스의 첫 커뮤니티 센터 지점은 2019년 문을 연 지 4년 만에 개인 저축 잔액이 73% 증가했다. 체이스의 첫 커뮤니티 매니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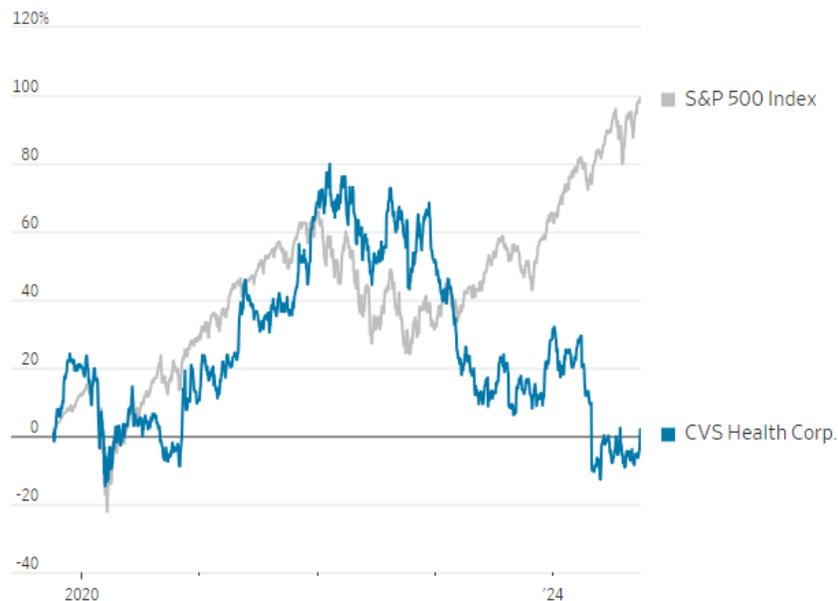
Nichol King은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은행의 신뢰를 구축하고, 체이스가 그들의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WSJ 기사

WSJ: A CVS Breakup Is No Easy Fix for Its Problems CVS 문제, 쉽게 해결 안 된다

- CVS는 실망스러운 실적과 주가 하락으로 회사 부서 해체(분리)와 같은 전략적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회사를 해체하는 건 통합으로 누릴 수 있던 혜택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약국 혜택 관리 사업인 Caremark는 보험과 약국을 모두 보완하는 사업이다.
- 회사가 해체된다면 집중과 단순성의 이점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 약국 매장을 수익성이 높은 보험 사업인 Aetna에서 분리할 수 있다. 소매 체인은 Rite Aid의 파산, Walgreens Boots Alliance의 어려움, 미국 전역의 약국 폐쇄를 봤을 때 반등이 어렵다.
- 헬스케어 헤지펀드 Jasper Capital Management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portfolio manager) Justin Simon은 “보험과 의료를 결합하는 데 신중한 전략과 전문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V8 엔진을 단다고 자동으로 페라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회사 해체는 소매 약국 개선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통합 헬스 회사(integrated health company)라는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작업으로부터 분리해 줄 수 있다.

Five-year performance



Source: FactSet

WSJ 기사

Bloomberg: Starbucks New CEO Wastes No Time in Overhauling Executive Ranks

스타벅스 새 CEO, 운영진 발빠르게 재편

- 스타벅스 신임 CEO Brian Niccol은 전임자가 시행한 변화를 일부 취소하면서 회사 경영진 재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 Niccol은 9월 9일 합류한 이후 회사의 매출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스타벅스는 Niccol을 채용하면서 “모든 고객에게 일관되고 매력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글로벌 최고 브랜드 책임자라는 한 명의 리더 아래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 Niccol은 경험이 풍부한 레스토랑 경영자이며, 취임 첫날부터 전임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받았다. 투자자들의 기대도 높다. Niccol의 CEO로 발표된 이후 스타벅스 주가는 화요일 종가까지 26%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FinanceYahoo: Tesla stock drops 5% after Q3 deliveries fall short of estimates

테슬라 3분기 출고량 예상치 미흡... 주가 5% 하락

- 테슬라가 당초 예상치보다 다소 약간 3분기 출고량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날 수요일 오전에 주가는 5% 하락 중이다.
- 3분기 출고 차량은 46만2천8백90대로 전 분기 대비 6.4%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 첫 증가세 분기를 기록했다. 이는 또한 작년 같은 기간 43만5천59대를 앞섰다.
- 그러나 월스트리트은 46만3천8백97대를 예상했다. 이들 출고분 중에서 모델 3과 모델 Y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YahooFinance 기사

[보고서]

美 항만파업에 금리인하 불확실성 가중..."파업기간이 관건" 조기종료 예측 우세하나 장기화면 인플레이션 심화...유럽 車업계 타격 우려

미국 항만 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 혼란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도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미 항만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의 동남부 항구 파업과 관련, 당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견해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준은 지난달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25bp(1bp=0.01%포인트)와 50bp 인하 전망이 여전히 맞서는 상황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